

南原 實相寺의 靑銅銀入絲香爐

鄭 永 鎬

全北 南原郡 山內面 立石里의 實相寺에는 寺寶로서 香爐 一座가 保存되고 있어 널리 알려져지 못하였으므로 筆者가 一九五九年 三月 同寺에서 調査한 바를 紹介하려 한다.

靑銅香爐라 傳稱되어온 此品에는 銀入絲의 彫鏤가 있고 口緣裏面에 點線銘文이 있었으며 梵字가 많이 入絲되어 注目을 끌었다.

形態는 高杯形으로서 身部와 臺座의 二部로 區分되며 爐身은 甌形으로 그 上部에는 廣幅의 口緣이 달리고 下底에는 一段의 받침形圓盤이만 들어졌다. 臺座는 上促下寬의 柄部를 가진 圓盤形인 바 그 頂部에서 爐身內底와 連結되었는데 柄部 上部에는 細狹한 圓帶를 둘러고 下盤外緣을 둘러 아서 四分圓帶가 隆起하고 그 兩側에 細條가 둘러 있다. 總高 三〇cm (爐身 高一四·五cm 臺座 高一五·五cm) 爐身上徑 三〇cm 同口徑 一九cm (口緣幅 四cm 口緣圓帶幅 一cm) 爐深 一六cm 臺座下徑 二〇·八cm (臺座圓盤 高一·八cm) 로 身部와 臺座가 別鑄되었는데 臺盤이 寬大함에서 全體의 安定感을 얻고 있다.



銀入絲는 爐身에 있어서 細線二條로 된 重圈을 四處에 配置하고 그 中央에 小重圈을 入絲하여 太線 梵字(卍)를

넣었고 그 外周에도 四處에 다시 細線重圈을 整然히 配置하고 그 안에 太線으로 梵字(卍)를 넣었으며 間地에는 流雲紋을 細入絲하였다. 換言하자면 四處의 大重圈內에는 各其 同一한 方式으로 五圈의 小重圈을 形으로 配置하고 그 小重圈內에 梵字를 넣었다. 口緣部 上面에는 細線重圈을 九處에 配置하고 그 안에 細絲二條로서 梵字(卍) 九字를 넣었다.

銀入絲의 彫鏤는 口緣上面과 爐身等 身部 全面에 滿鏤하였으며 身部下 面에는 一八瓣의 仰蓮을 二條細線으로 入絲하였고 다시 各 花瓣內를 彫飾하였다. 또 身部下底의 圓盤과 柄部 頂上의 圓帶에는 圓圈連繼紋을 둘러었다. 柄部 上部에는 六瓣伏連紋이 있는데 矩形의 瓣內에도 入絲되었다. 下盤部와 周緣部에는 唐草紋과 流雲紋을 滿鏤하였는 바 이러한 彫鏤의 技法은 細線入絲를 主用하였고 그 手法의 流麗함은 놀랄만하다. 口緣裏面에는 點線銘文이 있어 三六字를 判讀할 수 있었는데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維那□□□□萬歷十二年申申三月日鑄成化主妙元」 「雲峰百丈寺銀絲香爐大施主三權得濟」 「金□□……………」 (萬歷十二年은 宣祖十七年 西紀一五八四年)

以上에서 이 香爐는 形態 構造 彫鏤等에서 高麗의 國寶香院(表忠寺 奉恩寺所藏) ①이나 開心寺香院 ②과 同系에 屬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年代 所屬寺院 ③ 등의 銘記가 있어 當代의 樣式技法의 特徵을 보이는 重要한 資料로서 注目할만 하다.

註

- ① 黃濤永·「高麗銀入絲香院(表忠寺)의 新例」(美術資料) 第一號 一九六〇年 「奉恩寺의 香爐와 梵鐘」(東國史學) 第五輯 一九五七年
- ② 「李殷昌·瑞山開心寺의 靑銅銀入絲香院」(考古美術) 二(三) 一九六一年 三月
- ③ 百丈寺는 現在 實相寺의 庵子인 바 이 香爐의 移置事實은 實相寺 事蹟에 記錄되어 있다.